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0년도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추수감사절 · 교회설립기념주일 메시지

# 나는 종이로소이다

종에게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종은 이름도 없습니다. 부리기 위해서 바위라든가 곰쇠놈 같은 별명이 있을 뿐, 이름이 없으니 명함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목회자는 명함을 갖지 않습니다. 남이 알아주면 은혜요, 알 아주지 않아도 고마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게 내 것이 없으니 스스로 이룬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나 자신이 주의 소유물인데 내게 무슨 소유권이 있으며 등기부에 올릴 이름 석자가 없는 주제에 내 소유, 내가 한 일이란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시간도 심지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종에게 고난은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옵니다. 앉지 않아야 할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견디기 어 려운 시련이 옵니다. 매를 맞고 누명을 쓰고 멸시의 천대를 당하고 손발이 절단되고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종입니다. 종에게 무슨 인권이 있고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겠습니까. 천부당만부당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한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셨습니다.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는 즈음에 뒤를 돌아켜보고 앞을 바라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20년전, 종은 벌거벗기운 채 폭풍이 휘몰아치는 광야로 쫓겨난 정처없는 유랑아였습니다. 돌보는 사람도 도와 줄 손길도 전무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비참한 자리에 있었습니 다. 사막에 꽃을 피게 하시고 광야에 샘물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희망도 내일도 없던 불탄 포도넝쿨 이었습니다.

크시고도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종을 종으로 보지 않으시고 형제처럼 대해주신 나의 주님을 백골이 진토 될 때까지 충성스럽게 섬기렵니다.

주님! 사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사 이 중 윤

■ 이 중 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임직을 받으며

# 질그릇 같은 우리를



임광우 집사(4교구)

천하고 보잘것 없으며, 바라볼 것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집사 임직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5주의 교육을 받는 동안 자신을 돌아 보게 하였고 회한과 수치를 느끼게 하시고, 게으름과 무지와 교만의 죄를 회개게 하셨습니다.

은혜 주셔서 돕는 일과 봉사의 직으로 부르셨으니 옛습관을 버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신앙적인 믿음의 언어로, 맡은 부서에서 충성 되어 섬기며, 믿음의 선배들을 존경하며,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섬기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주의 개신교의 영원한 걸작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새벽마다 너무도 쉽게 강해 해주신 이종운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바른 신학과 성경 중심의 진리 가운데 세워진 서울교회에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하도록 깨어 기도 하겠습니다.

개인의 신앙성장뿐 아니라 교회의 성장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그릇인 내속에 예수를 담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담게 하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하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온전히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양정실 권사(15교구)



참 아름다운 감사의 계절입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 부르셔서, 그루터기같이 불품없고

부족한 제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피택 직후, 지난 6개월간 피택자 교육과정과 작은 섬김, 경건생활훈련, 말씀과 기도의 흥해작전, 기도와 전도 작전인 사명자 대회로 이어진 거룩한 여정은, 여느 해와 달리 뜻 깊은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일깨워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명자 대회 때 이종운 위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John Calvin의 기독교강요 강의를 장로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른 신학 정립이 바른 신앙생활을 선도할 수 있음과 한국 장로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의 진수를 맛보며 마음에 새긴 감사와 축복의 잔치였습니다. 제10대 권사로 부름 받은 저희 51명의 신임

권사들은 때로 육체의 가시와 환경의 우겨쌈, 각자 삶의 무게를 감사로 딛고 이제 주님의 몸 된 서울교회를 위해 겸손과 충성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귀한사명 충실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목회를 신실하게 감당하시며, 기도와 풍성한 말씀의 꼴을 주신 목사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믿음에 덕을 세우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겠습니다. 목사님의 목회방침과 우리 교회에 주신 vision성취를 위해 기도와 순종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설립된 서울교회 위해 눈물과 기도로 헌신한, 선배 권사님들의 귀한 믿음과 섬김을 본받겠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 사이에서 천국 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자 구제를 위한 서울 교회 구원선이 순항할 수 있도록 작지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기도와 착한행실의 불을 밝히며, 소금으로 녹아 고르게 맛을 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사명을 이루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임직자 권면의글

# 날마다 죽노라



김광신 장로(12교구)

초지일관, 일편단심, 초심유지 라는 단어는 일꾼에게 주어진 명제이며 감당할 수 없는 난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취임 첫 날의 축하인사와 격려가 작심삼일된다는 속담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집사, 권사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문제는 축하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길게 소명과 헌신과 충성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합니다.

지극히 작은 봉사 하나라도 최선의 표시와 결과를 날도록 나를 드리고 전심으로 행하는 신행일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어떻게 헌신할까를 고민해보는 지혜가 요구 됩니다. 긴장하고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과는 평균점 이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된 선배들의 본을 따라가면서도 나만의 특별하고 개성있는 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매일 나를 쳐서 복종하여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망치소리를 들으며 우리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더욱 겸손하게 나를 주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수고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줄애굽기반을 마치고

# 모세의 모습처럼

김경애 집사(13교구)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지만 정작 어떻게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흠뻑 맞을 수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가장 확실하고도 빠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그런 말씀의 자리인 줄애굽기 성경공부반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하는 줄애굽기 성경공부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저녁을 챙기고 집안을 정리하고 종종히 집을 나서야 하는데 주부인 나로서는 몹시 분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망이 그 더딘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줄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일에 모세를 택하여 부르시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

당할 수 없다며 몇 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나아가 동역자를 주심으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애굽에 열가지 재앙을 내리시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홍해를 갈라 그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앞에도 무수히 많은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홍해 앞에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는 모세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하지만 모세가 마침내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깨닫고 변화된 것처럼 나도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마칠때면 따뜻하게 손 내밀어 주시는 정수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이중운 · 박사이중운 - 마지막회

# Soli Deo Gloria!

-이중운은 이 시대 한국의 칼빈이다-

서울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섬기는 이중운은 하나님의 목회를 한다. 자신의 꿈을 펼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심정으로 일을 한다. 그러므로 미국장로교회(PCA)에서 안수받고 초교파신학교인 ACTS교수로, 할렐루야교회를 섬기다가, 전주대학교 총장을 거쳐, 합동측 중현교회 목사로서 그리고 서울교회(통합측) 목사



2000년 12월 25일 입당감사예배 전경

로 주님의 일을 한 이중운은 연세대 부총장 서중석박사의 표현대로 이 시대의 한국의 칼빈이다. 그는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으로 무장하고 순교자적 청교도 신앙과 생활을 실천한 이 시대의 사도다. 신행일치(言行一致)의 삶의 본을 보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 이중운은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위해 7년간 매월 월례세미나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초대 이사장으로 마침내 법무부가 발의하고 3당 법사위원장들의 동의로 국회에서 민영교도소 설치를 위한 입법화를 성사시켰다. 대통령 선거때마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목회자세미나에 후보자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정책결정을 위한 질의를 하게 하였다. 그 일을 통한 열매가 기독교교도소다. 월간조선은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지난 100년간 기독교 10대 뉴스로 서울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목사 장로 안식년제를 뽑았다.

이중운은 새 예배당 설계시 장로님들과 설계팀장과 함께 유럽교회 tour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정리하던 중 파이프오르간 예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회당 건축도 추진되었지만 건축위원장 오정수장로의 특별한 희생자적 헌신과 눈물어린 충성을 이중운은 하나님께 크게 감사했다. 예배당 건축비는 물론이고 파이프오르간 예산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특은을 입은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케 된 것을 감사와 보람과 은혜로 알고 눈물의 기도와 희생의 헌물을 바쳤다. 벽돌이 아닌 기도로, 기술이 아닌 비전으로, 물질이 아닌 믿음으로 이루게 하셨다.

ACTS교수 시절 미국학생 핸드벨 단원들이 호주 방문 후 잠시 한국 체류를 할 때 서대문에 있는 ACTS guest house에 머물면서 새벽연습을 하는 광경을 본 이중운은 그곳 학생으로 있었던 김용진군을 호출하여 배우라고 지시한다. 미국에서 이중운이 수입해온 핸드벨을 가르칠 사람이 없던 차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교회 핸드벨팀이 한국에 최초 교회 연주팀이 된 것이고 중현, 서울교회에 이어 핸드벨 연주의 본지류가 되었다. 이중운은 음악이 중요하고 그러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맡길 음악 감독제를 중현에서 그리고 서울교회에 도입한다.

서울교회가 2000년 12월25일 대치동 새예배당으로 입당할 때 이중운은 지역에 맞는 목회구상을 하던 중 대치1동 동회장을 만나 교회가 위치한 지역을 살핀다. 마침 장로님이신 당시 동회장은 대치1동에는 구제대상이 없으며 개인 단독주택이 없고 아파트 아니면 연립 또는 빌라로 구성되어 개인 단독주택의 지하실에서 연탄불을 피우면서 사는 이들이 없다고 한다. 전세로 사는 이도 최소한 역대의 돈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극장과 나이트 클럽이 없고 여관이 없으며 그 대신 학원이 365개가 있

다고 한다. 서울교회가 이 지역으로 이전하던 시기와 함께 신문에 대학 입학생 통계를 발표되었는데 대치동은 명실공히 교육특구로 부상케된다. 이중운은 이점을 착안하고 다시 유럽여행을 한다. 미국의 교회 학교 제도는 교육목사로 경험도 있어 조금은 알만한데 유럽에서는 공부만 했지 교회 봉사 경험이 없었다. 결국 내린 결론이 가족예배(family service)

제도로 1부 예배를 50분으로 하고 초등학교 1년생부터 고등부까지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한다. 초신자들이 어려운 설교보다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시도한다. 예상대로 어린이는 예배 태도와 이해가 빨랐고 성인들도 쉽고 편안하게 multi-media를 사용하여 듣는 설교가 좋다고 한다.

구제는 성경이 크게 강조하는 성도의 의무다. 4,500만 한국 동포를 한 교회가 사랑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교회 초창기부터 사랑의 집을 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집을 구했더니 Agape Town을 주셨다. 청평 산기슭에 자리잡은 장애인 전문대학 호산나학교를 세운다. 스웨덴, 덴마크, 독일을 벤치마킹하여 국제적 모델이 될 아가페타운에는 정박아를 도울 수 있는 노인 시설을 함께 하여 장애인들은 노인을 보살피는 서로가 보람을 만들도록 했다.

이중운은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복음주의 신학회를 창설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로잔운동에도 처음부터 참여하여 총무를 거쳐 한국의장으로 그리고 아시아로잔위원회 의장직과 국제로잔의 think tank 멤버쉽도 맡고 있다. 한국 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운동위원장, 군선교 신학위원장, 한기총 신학위원장, 장로교신학회 회장으로 그리고 세계 하나밖에 없는 군선교신학 Journal을 출판하고, 장로교신학 Journal도 장로교신학회를 통해 출판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 두분 밖에 없는 세계신약학회(SNTS)회원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자다.

국내외 집회, 강의, 회의 참여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의 집필 역시 숏돌릴 시간없이 쏟아져 나온다. 그 비전과 열정과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이중운에게 휴가도 공휴일도 없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은 workholic이라는 별명을 듣는다. 그를 10년간 옆에서 두고 있는 박진희권사는 이중운 목사님같은 분을 모시게 된 것을 하나님께 크게 감사한다고 한다. 멀리 보면 반짝이는 금강석일줄 알고 가까이 찾아가 보니 깨어진 유리조각이라는 말이 있다. 가까이서 모신 분이 진짜 목사, 진짜 박사라 한다면 그 말은 믿을만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중운은 한마디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한 사도 바울의 말 씀처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한다.(고전15:10)

Soli Deo Gloria!

\*\*오늘로 『목회자의 길』 연재가 끝나게 됩니다. 그 동안 애독하여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주)

교회 설립 즉시

이천십년  
십일월  
스므여드레

나소정 집사(7교구)

부서진 날개  
접혀진 무릎  
생명의 흔적은  
눈부신 순결한 죽음이여라

생채기 난 하늘과 땅을 끌어안고  
끝없이 축수를 뻗어보던  
혼돈된 밤

삭발한 머리는  
팅 빈 빌라도 뜰에 내던져진  
기적같은 진실이여라

한 알의 밀알  
양상한 무릎은  
이십년된 별거벗은 새벽이  
정오의 빛처럼 걸려 있고

이천십년 십일월 스므여드레  
생명을 떠담은  
환희의 날  
우리의 심장이 뛰는 스무살 되는날

만나고 헤어지는 시간속에서  
사랑의 눈물  
쓰러린 살점을  
한근 두근 내주고

당신의 그 피로만  
꿈꾸는 너 행복자  
서울교회여



만민에게 전도 - 선교사로 파송받으며

#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정상진 · 홍성임 선교사  
(팔라우 파송)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구별하여 선택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3개월의 목회동역과 선교훈련을 받은 소감을 한마디 말하라고 하면 기도의 삼겹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종운 위임목사님, 박노철 목사님, 부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교우들과 만남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내면의 삶을 통하여 저의 성품을 알리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 즉 교제를 나누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실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서울교회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3개월의 짧은 시간이 아쉬웠지만 여러분들의 선교지를 위한 열열한 중보기도와 사랑의 돌보심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갑니다. 서울교회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기도제목>

1. 현지 지도자 양성을 위해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 계속교육)
2. 팔라우, 압, 축, 폰페이(마이크로네시아) 군경찰선 교회를 설립하여 비전2020의 선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3. 팔라우 기독교등학교 교실건축을 위하여
4. 늘 성령충만한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활을 통해 전할 수 있도록
5.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리트릿센터를 안전한 지대로 이전하며 개보수할 수 있도록
6. 팔라우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7. 자녀들의 학비가 채워지도록



이종길 · 홍미영 선교사  
(말레이시아 파송)

기도 없이 사역 없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삼상12:23) 사무엘의 기도의 삶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성도는 나라와 제사장입니다.(계1:6) 제사장은 기도합니다. 드문 경우 사망의 열쇠가 마치 마귀에게 있는 것처럼 크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 계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계1:18)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망과 음부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눅 10:19) 언제나 기도하겠습니다.

서울교회 성도와 함께 기도로 호호하며 기도로 대적의 장애물을 뛰어 넘고 기도로 불신의 영과 싸워 이기기 원합니다.

### <기도제목>

1.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택하신 말레이인들이 주께로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소서!
2. 복음을 가로막는 것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약한 영에 묶이고 놀리며 상한 영혼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3. 온 가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 큰 권능 보게 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며, 십자가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소서!



#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양재성 · 이현주 선교사  
(카자흐스탄 파송)

3개월의 서울교회 목회동역 기간이 어느덧 끝나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 카자흐스탄 아스타나로 파송받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서울교회에서의 시간들은 파송받는 선교사로서 파송하는 서울교회의 비전과 사역들을 배울 수 있었던 정말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선교지로 떠나기 앞서 2010 사명자 대회 특별새벽기도 시간을 통해 이종운 위임목사님의 요한 칼빈의 '기독교강요' 전권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전세계에서 이런 특별한 복을 받고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들은 2010년 서울교회 파송선교사들 뿐일 것입니다. 이런 은혜 위에 은혜를 입고 이제 저희 가정은 12월 6일 선교지로 출발합니다.

아무췌록 카자흐스탄 선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종운 위임목사님과 박노철 목사님, 그리고 목회동역의 현장을 함께 했던 부목사님들께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동안 정말 감사했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 <기도제목>

1. 870만 카작인 안에 복음의 돌과구가 활짝 열려 수많은 카작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2. 기독교에 대한 오해(러시아 사람들이나 믿는 종교)와 불신(이단이다)을 일으켜 영혼들을 속박하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훼파되도록.
3. 카작 모슬렘 안에 개혁한 으뚝교회가 토착적이며 자생적이고 배가하는 교회가 되도록.
4. 으뚝교회를 발판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주변 도시와 마을에 교회들을 계속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5. 온 가족이 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박진영 · 김미성 선교사  
(방글라데시 파송)

아시아에서도 가장 소외된 나라,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 병든 자와 눈먼 자와 갇힌 자들,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백성들, 하지만 이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땅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나눠주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방글라데시가 주께 돌아 오기까지 우리의 삶을 드리려 합니다. 행복지수 세계 1위(?) 하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들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주시고, 방글라데시는 소망이 있고 방글라데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이슬람 국가이지만 전도와 사역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다른 어떤 이슬람 나라보다도 전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복음을 전하면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은 복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 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지하고 예정하사 구별해 놓은 백성을 찾는 것이 선교사의 역할입니다. 방글라데시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기도제목>

1.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내면적인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선교사 되게 하소서
2. 정착과 날씨 적응을 위해, 합당한 집을 구하고 세 아이들끼리 함께 다닐 좋은 선교사 자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3. 저희가 사역하게 될 꼬람뿔라병원교회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치유와 회복으로 환자들이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4. 꼬람뿔라병원의 모든 동역자들이 하나되고 겸손과 섬김의 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5.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중 예수님을 알고자 소원하시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게 하소서
6. 희망의 땅, 방글라데시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7. 한국에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 감사, 감사, 또 감사

## 오늘은 추수감사절 · 교회설립기념주일

-주일에배 시간에 성찬예식-

### 선교사 파송 / 제11대 집사 · 제10대 권사 임직식

-찬양예배 시간에-

오늘은 우리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이며 동시에 교회설립 기념과 선교사 파송식, 집사 · 권사 임직식 등을 하는 잔칫날이다. 주님 앞에 죄인이요 보잘것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교회설립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일에배시간에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한다. 그리고 찬양예배시간에는 지난5월 피택되어 교육을 받아온 51명의 피택 집사와 51명의 피택권사가 임직하며 12명의 협동 권사가 취임한다.

오늘 파송되는 선교사는 정상진 · 홍성임 선교사(팔라우), 양재성 · 이현주 선교사(카자흐스탄), 이종길 · 홍미영 선교사(말레이시아), 박진영 · 김미성 선교사(방글라데시) 김명일 · 김덕수 선교사(군파송 선교사)이다.

오늘 임직하는 102명의 집사 · 권사와 12명의 협동 권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되는 10명의 선교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승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기도한다.

# 군선교사 파송

## 육사교회 화랑기독교인원

우리교회는 김덕수 목사(54.2.3)를 군선교사로 추가 파송한다. 김덕수 목사는 육군사관학교와 서울장로회 신학대학 졸업(B.A), 장신대 신학대학원 졸업(M.Div.), 장신대 세계선교대학원 수학, KPCA Theo. Seminary 재학중(D.Min과정)이다. 육사화랑 선교회를 맡아 사역한다.

# 스데반회 정기총회

## 12월 2일(목) 오후 7시 101호

제1 · 스데반회(1회장 : 최광성 집사, 2회장:송인 권집사)는 12월 2일(목) 오후 7시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정기총회를 갖는다.

새로운 회장과 임역원을 임명하는 이번 정기총회는 이종운 목사가 설교하며 박노철 목사가 격려사를 한다. 2010년 한 해를 돌아보는 총회에 스데반회원 전원은 부부동반으로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 바란다.

# 2010 한국 군선교의 밤

## 12월16일(목) 오후5시, 서울교회 본당

오는 12월 16일(목) 오후 5시에 2010 한국 군선교의 밤이 열린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군선교사역자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한국교회 군선교사들의 연합과 성탄 송년 예배, 2010년 사역결산 감사와

2011년 사역헌신 다짐을 위한 것이다. 오후5시부터 8층 만나홀 앞에서 등록을 접수받으며 만찬 후 오후 6시 20분에 성탄음악회가 열리고, 7시 10분부터 열리는 예배는 이종운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다.

# 2010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

## 12월18일(토) 오후2시30분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이 비전2020운동본부(위원장 이갑진 장로) 주관으로 12월18일(토) 오후2시30분에 거행되며, 설교와 성찬식은 이종운 목사가 집례한다. 이 날 약 4000명의 장병들에게 세례식을 베풀

예정이다. 세례, 성찬위원회는 웨스트민스터 홀에 모여 오전 8시 30분에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9시 교회에서 출발한다.

### 등정

- 이종운 목사는 30일(화)한국로잔 중앙위원회를 소집한다.
- 개업: 이후경 집사(10교구) 으뜸수학학원, 강동구 암사3동 443-1번지 Tel.426-0355
- 주간식당 봉사: 뽕뽕전도회(11.28) 마리아전도회(12.5)
- 금주의 식사 · 떡: 피택집사, 피택권사 (임직을 감사하며)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 금주 주요 행사

- 11.28 (주) 성찬식, 추수감사, 교회설립감사, 임직식, 선교사 파송식
- 1 (수) 권사회 총회
- 2 (목) 스데반회 총회
- 3 (금) 목회 정책발표회
- 5 (주) 섬김위원 임명, 교구 총회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흠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국가의 평안과 복음화된 통일조국 실현위하여
4. 연말연시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넘치도록
5. 임직식, 파송식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 ■ 교회오시는 길

